

# 서울시민들 “무주가 제2 고향”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서울에서 온 예비 귀농인 대상 시범 운영

지난달 21일 시작된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주관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이 초보 귀농·귀촌인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서울시민 초보 귀농·귀촌인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비 귀농인을 모집하고 무주군이 귀농·귀촌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예비 귀농인(서울시민) 8세대 13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2017.8.21.~12.20.) 중이다.

서울시에서 교육비의 60%를 지원하며 예비 귀농인들이 무주군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주군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에게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사)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영농을 비롯한 선진 농장방문 교육 등을 진행하고 현장 기술교육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입교자 대표 김영숙(61)씨는 “박연하게 노후를 그리다가 우연한 기회에 가족실습농장에 참여하게 됐다”며 “땅을 일군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맑은 공기, 좋은 경치 속에 묻혀 지내는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농사일을 배우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

다”고 전했다. 또 “김장 배추 모종을 심고, 배추를 키우면서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고 덧붙였다.

올 6월 30일 안성면 공정리 2999-1번지 일원에 준공한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생활동(10동)과 공동실습텃밭(1개소 1,200㎡), 개인 텃밭(10개소 330㎡), 공동시설하우스(1동 660㎡), 공동버섯하우스(1동 168㎡) 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이삼목 소장은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자 중 20~30대 예비귀농인 2세대 4명이 주소를 무주군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입교자들이 무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과 서울시는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귀농인 체류시설과 영농실습 공간 마련과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귀농지원 추진 사업에 대한 교차 홍보와 안내, 그리고 △교육수료자가 무주군으로 귀농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에 협력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2018년 시책발굴보고회 진행 중

무주군은 2018년 시책발굴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번 보고회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무주군청 16개 실과소 직원들이 발굴한 180건의 신규 시책들이 공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시책으로는 △아름다운 노년의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응급상황

에 대비한 실내 주차용 도로명 스티커 부착, △무주군 미래발전사업 발굴 포럼 운영, △하늘에서 본 무주 홍보 영상물 제작, △민간 의료기관 CT 협진체계구축 등이 눈에 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시책들에 대해 추진 가능성과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지진 안전 주간’ 홍보 실시

장수군은 지진 안전 주간에 맞아 지진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12일 경주지진 당시 지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 장수군은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장수를 일원에서 가동행진과 함께 ‘우리 집 지진대비 체크리스트 배포’, 주요 관공서에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책자 비치 등을 통해 홍보했다.

지진발생시 주요 행동요령으로는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이나 탁자 밑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출입문 개방,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한 뒤 침착하게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하며,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 다음 라디오나 공공기관 안내 방송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시 스스로 대응하는 안전역량을 제고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홍삼연구소, ‘찾아가는 기업 상담’ 운영

## 기술 이전 기업 · 품질인증 수여 기업 · 미생물 분양 능가 사후지도

진안홍삼연구소는 13일부터 관내 소재 기업들의 산업현장으로 각 분야별 전문연구원들이 직접 방문 지도하는 ‘찾아가는 기업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 상담은 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품질인증을 수여한 기업 및 미생물을 분양받은 농가들의 사후 지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연구·개발함으로써 진안군민과 기업의 이익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 일정은 13일 진안읍을 시작으로 대산 업체들이 많은 곳부터 격주로 읍면별 방문할 계획이다.(진안읍(9/13), 주천면(9/27), 정천면(10/11), 용담면(10/25), 부귀면(11/08), 마령면(11/22), 성수면(12/13), 안천면(12/27), 백운면(1/10), 동향면(1/24), 상전면(2/14))

주요 상담내용은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품질인증 및 성분검사 ▲소재가공 및 효능평가 ▲친환경 인삼재배 및 미생물 분양 등이다.

고관덕 소장은 “그동안 연구소로부터 21개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았으

나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기술이전 품목의 매출 유발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기업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47개 업체들이 우수한 진안홍삼제품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이번 상담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기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군, 추석대비 계량기 특별단속

장수군은 계수용(祭需用品) 및 일반 생활용품 등이 다량 거래되는 추석을 앞두고 이들 상품의 거래 시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의 정밀정확도 점검 및 부정계량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저울류의 특별 지도단속을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계수용품과 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정육점,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마트 등을 집중 단속하며, 단속내용은 사용 전 저울의 눈금 지시바늘을 0에 맞추어 놓지 않고 계량하는 행위, 수평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계량하는 행위, 사용 공차를 초과하는 행위, 변조한 저울의 사용, 검정 및 정검시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국립축산과학원 업무협약

진안군은 12일 이향로 군수와 오성중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축산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산업발전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진안한우 번식효율 및 고급육 생산 기술지원, 진안홍삼한우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축산물 6차 산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 축종별 기술교육, 전문컨설팅 제공 등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12일 시장상인회와 사업추진업체로 선정된 (주)한스비즈니스컨설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진안시장에서 가졌다.

골목형 육성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통시장의 특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은 지난 3월 최종 선정되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화 환경조성과 함께 식당가와 중앙광장 정비, 문화 ICT 특화사업 등 내년 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